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 윤 미 · 이 숙^{1)†}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대학원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1)†}

Effects of the Attention Span Temperament,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s of Mothers and Family Support on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silience

Yun Mi Cho · Sook Lee^{1)†}

Graduate student,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

Professor,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1)†}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examines the-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model variable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s of between the attention span temperament,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s of mothers, and family support (individual external variables) to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ough self-reliance, psychological variabl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ttention span temperament had significant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n the externalization of behavioral problems, but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s and family support had on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Self-resilience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revent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and increase their self-resilience.

Key words: attention span temperament,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family support, self-resilience, behavior problem

I. 서론

현대 사회의 아동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심리 사

회적 적응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부적응 문제가 날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아동기 문제행동을 그 시기에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게 되

접수일: 2014년 4월 4일 심사일: 2014년 4월 27일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19일

[†]**Corresponding Author:** Sook Lee Tel: +82-62-530-1323

e-mail: sookleej@hanmail.ne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면 청소년기 비행이나 성인기 범죄로까지 이어져 (Kim & Nam 2000)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는 유아기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아동의 자기 인식, 자기 가치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타인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정서적, 행동적 통제가 이루어질 때 환경에의 적응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국 94개 초등학교 학생 7,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 정신건강 선별검사’(2006)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 4명중 1명에 해당하는 25.8%가 정서와 행동에 부적응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 자신은 물론 가족, 또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될 뿐 아니라(Sim 1992),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문제행동이 지속되고 강화될 수 있는 만큼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개입과 해결 및 예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Thomas et al. 2010). 이러한 문제행동의 개념은 광범위한 동시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며 일부에서는 이상행동, 또는 부적응행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은 정상적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이나 부적응행동을 말하며, 부적응행동(maladjustment behavior)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나 사회의 질서 규범에 조화되지 못하고, 그 개인 자신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다.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세분화 하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문제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Achenbach & Edelbrock 1983). Achenbach의 문제 영역별 접근에 따르면,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 충동성, 비행과 같이 아동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억제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문제이며, 내재화 문제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과 같이 주로 심리내적인 억제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이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즉, 외현화 차원의 문제는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 부족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행동을 통해 밖으로 표현하는 경

우에 해당하며, 내재화 차원의 문제는 통제가 지나치거나 정서적인 문제로 아동이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한다(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따라서 문제행동은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에 있어서 환경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부적응적인 내재적, 외현적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의 조기개입과 예방을 위해 문제행동의 발생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발달이 상호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이루어지듯이 문제행동 또한 단일한 한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질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ee 2008).

먼저 개인의 기질적 요인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Kim 2005; Kwon 2011). 기질의 개념은 생후초기부터 나타나는 개인차로 기질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르고(Goldsmith et al. 1987), 개념적 정의와 접근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다양한 기질의 유형 중에서도 주의집중성 기질은 인지능력과 학업성취가 중요시되는 아동기의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Holbrook & Martin 1985). 주의집중은 주위의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으로 아동의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에게 특정사물이나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학습 및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Lee 2001). 주의집중성 기질이 강할수록 산만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지속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의집중성 기질이 약할 경우에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하여 학습능력이 저하되거나(Dawson et al. 1980), 상호작용의 질이 낮아져 또래관계에서의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Eisenberg et al. 1997). 또한 상황에 대처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게 되어(Abikoff 2002) 적응과정에서도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기가 되면서 사회적 및 학업적 문제가 지속되며 정서적인 문제가 증가되어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 약물 남용 등 품행문제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주의집중성 기질 요인은 아동기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의집중성 기질을 중심으로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기질요소 중 하나로 다루고 있어 주의집중성 기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문제행동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개인 외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Webbster-Stratton & Herbert 1994). Hallahan & Kauffman(1978)은 정서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태도의 유형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는 애정, 합리성, 통제의 정도 등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Symonds 1949).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온정과 사랑으로 관심있게 돌보며 지지하고 수용하는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양육태도의 유형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Lee 1984) 제시되고 있으므로 애정적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Gray & Steinberg(1999)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내재화 문제와 관련된 부적응을 예방하고 자율성을 발달시킨다고 하였으며, Pettit et al.(1997)는 학령 전부터 초등학교 전학을 거치는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적응에 관한 7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학령기 동안 지속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높은 수준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이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었다고 보고하였다. Park(1996)은 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자녀들의 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거부적·통제적일수록 아동은 불안하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이라고 하였다. Kang(1999)은 어머니가 애정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났으며, 권

위적인 통제방식으로 자녀를 대할 때 아동의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Park(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에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부모의 애정을 높게 지각하면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등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으므로(Park 2010)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하겠다.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요인 중 다른 하나는 가족지지이다. 가족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개념으로 가족이 제공하는 도움과 원조(Park 1985)를 의미하는데, 가족지지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고 아동이 사회에 적응하고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중재시켜 주고(Kim 1995), 특히 부모에게서 받는 지지는 아동의 지적 특성 및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2005). 또한, 가족과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사랑과 수용, 안전의 느낌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적응과 안녕에도 도움을 준다(Ahn 2009). 이러한 가족지지가 결여되었을 때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Kaplan et al.(1983)은 아동들에게 있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박탈은 자기 거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Bryant(1985)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생활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 사이에서도 심리적인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Sim(1999)은 부모지지는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여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함을 주장하였고 Kim(2000)은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이 문제행동을 적게 보였다고 하였다. 아동기에는 또래들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사실이나, 부모들은 계속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부모는 초등학교 입학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정서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다(Kwak 2009). 이처럼

부모를 포함한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나 지원은 아동의 심리, 행동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아지고(Sim 1999),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다고 보고된다(Primavera 1982). 이렇듯 가족 안에서의 정서적인 지지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Hartup 1989).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성공적인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기질적 요인, 개인 외적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다차원적인 접근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즉,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상황인데도 비교적 상처를 받지 않고 상황을 잘 이겨내서 안정된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는 아동도 있다(Hong 2006). 위험요인에 노출된 아동일지라도 모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아동에 따라서 다른 적응 수준을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고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개인의 심리적 변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아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자아탄력성이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불안을 경험하거나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의 부족으로 문제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Klohn 1996).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필요한 적응 기제이며 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이 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아탄력성과 문제행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자아탄력성과 적응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되어졌을 뿐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여러 측면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드문 편이다.

한편,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지지는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Kwon 2008; Jeong 2011).

그러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유대관계나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주로 다른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과 개인 외적 요인인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 자아탄력성이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Ock 2010) 다양한 차원 안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서로 관련을 맺으며 작용할 수 있고 보호요인들 간의 효과적인 작용이 중요하며 보호요인들 여러 개가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 이에 자아탄력성은 각각의 변수들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 개인 외적 요인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 그리고 심리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은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개별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어 연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문제행동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주의집중성 기질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지지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주의집중성 기질과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 그리고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확인해 봄으로써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의 강화를 통한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유도하고 아동의 적응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상담과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 및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는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5개구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 5, 6학년 802명이었다. 이 시기 아동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고와 느낌에 대해 신뢰성 있게 보고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문항은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진행하였고 학교별로 5, 6학년에 총 8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84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8부를 제외한 80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1) 문제행동 척도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 (1991)가 개발하고 Oh et al(1997)가 번안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를 사용하였다. K-YSR의 119문항 중 외현화 행동문제(비행, 공격성)와 내재화 행동문제(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에 해당하는 6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런 일이 있다(1점)’, ‘자주 그렇다(2점)’를 부여하여 3점 평정척도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총 30문항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50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ttle et al(2002)의 제안 가운데 무작위법을 이용하여 공격성의 13개 문항을 각각

6문항, 7문항씩 공격성 1, 공격성 2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잠재변수인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측정변수로 사용하여 공격성1, 공격성2, 비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공격성 1의 Cronbach's α 는 .74, 공격성 2의 Cronbach's α 는 .75, 비행의 Cronbach's α 는 .63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행동에서는 31 문항 중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50이하인 문항을 제외하고 총 24문항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 결과, 우울불안의 Cronbach's α 는 .88, 위축의 Cronbach's α 는 .75, 신체증상의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ark(1996)이 개발한 척도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를 부여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채점하였다.

자아탄력성은 40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의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04~.50으로 낮은 요인부하량의 값을 보인 문항을 제거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활력성의 Cronbach's α 는 .83, 감정통제의 Cronbach's α 는 .84, 호기심의 Cronbach's α 는 .68, 친구관계의 Cronbach's α 는 .80, 낙관성의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 척도

아동의 기질을 평가하는 척도는 Windel & Lemer (1986)의 개정판 기질차원척도(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Lee(1994)의 ‘아동 및 청소년 기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명숙의 기질 척도는 본래 10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주의집중성(8 문항) 기질 차원만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

Table 1. A correlation analysi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z	
a	1																									
b	.66**	1																								
c	.46**	.54**	1																							
d	.47**	.46**	.41**	1																						
e	.29**	.33**	.29**	.26**	1																					
f	.20**	.25**	.24**	.22**	.66**	1																				
g	.24**	.26**	.26**	.23**	.67**	.67**	1																			
h	.28**	.29**	.24**	.24**	.68**	.67**	.74**	1																		
i	.28**	.27**	.20**	.25**	.61**	.60**	.62**	.70**	1																	
j	.26**	.28**	.24**	.24**	.62**	.59**	.64**	.71**	.66**	1																
k	.30**	.29**	.31**	.28**	.58**	.23**	.64**	.61**	.56**	.59**	1															
l	.31**	.32**	.32**	.31**	.56**	.52**	.61**	.60**	.55**	.54**	.83**	1														
m	.30**	.32**	.32**	.30**	.59**	.55**	.62**	.63**	.59**	.58**	.86**	.87**	1													
n	.25**	.27**	.29**	.30**	.48**	.49**	.52**	.53**	.50**	.46**	.64**	.69**	.67**	1												
o	.38**	.41**	.37**	.40**	.35**	.36**	.31**	.33**	.36**	.29**	.36**	.37**	.40**	.37**	1											
p	.35**	.37**	.30**	.32**	.24**	.18**	.19**	.23**	.23**	.23**	.25**	.23**	.25**	.19**	.38**	1										
q	.42**	.37**	.30**	.40**	.24**	.25**	.21**	.23**	.24**	.20**	.24**	.29**	.28**	.28**	.62**	.31**	1									
r	.35**	.38**	.36**	.35**	.31**	.32**	.28**	.27**	.31**	.25**	.34**	.35**	.37**	.40**	.65**	.45**	.51**	1								
s	.43**	.44**	.36**	.39**	.42**	.38**	.38**	.39**	.40**	.36**	.43**	.46**	.47**	.42**	.64**	.44**	.57**	.58**	1							
t	-.23**	-.22**	-.24**	-.19**	-.21**	-.17**	-.16**	-.20**	-.20**	-.25**	-.25**	-.19**	-.23**	-.21**	-.16**	-.42**	-.11**	-.27**	-.23**	1						
u	-.20**	-.22**	-.21**	-.16**	-.22**	-.15**	-.14**	-.21**	-.18**	-.21**	-.19**	-.14**	-.18**	-.17**	-.09*	-.46**	-.05	-.25**	-.19**	.74**	1					
v	-.23**	-.22**	-.24**	-.20**	-.22**	-.18**	-.17**	-.19**	-.17**	-.22**	-.25**	-.21**	-.22**	-.19**	-.19**	-.44**	-.15**	-.29**	-.23**	.65**	.62**	1				
w	-.22**	-.25**	-.22**	-.18**	-.33**	-.31**	-.30**	-.32**	-.29**	-.33**	-.38**	-.31**	-.38**	-.32**	-.28**	-.38**	-.09*	-.27**	-.32**	.58**	.57**	.55**	1			
x	-.19**	-.24**	-.22**	-.16**	-.26**	-.25**	-.22**	-.25**	-.22**	-.26**	-.33**	-.26**	-.33**	-.29**	-.35**	-.28**	-.19**	-.29**	-.33**	.48**	.42**	.46**	.72**	1		
z	-.12**	-.17**	-.17**	-.16**	-.20**	-.16**	-.19**	-.20**	-.16**	-.21**	-.26**	-.20**	-.21**	-.19**	-.16**	-.28**	-.04	-.17**	-.21**	.43**	.43**	.43**	.58**	.50**	1	

*p<.05, **p<.01, ***p<.001

a-d attention span1-4, e-j affectionate1-6, k-n family emotional, appraisal, informative, material

o-s vitality emotion control curiosity relationships optimism

t-v aggression1, aggression2, misdeed w-z depression and anxiety, shrinking, body symptoms

령다(5점)’을 부여하여 Likert 식 5점 척도로 채점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점수 해석은 결과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의집중성 기질 6문항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주의집중성 기질의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척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 & Lee(1988)이 개발한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애정적 양육태도 요인(9문항)을 아동이 평정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을 부여하여 Likert 식 5점 척도로 채점하였고 점수 해석은 결과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애정적 양육태도의 Cronbach’s α 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Analysis results for the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β	SE	C.R(t)
Attention span temperament	Attention span 1	1.00	.78	-	-
	Attention span 2	1.05***	.81	.05	21.60
	Attention span 3	.80***	.65	.05	17.41
	Attention span 5	.72***	.61	.04	16.46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Affectionate 1	1.00	.80	-	-
	Affectionate 2	.96***	.78	.04	24.359
	Affectionate 3	1.02***	.84	.04	26.786
	Affectionate 4	1.11***	.88	.04	28.625
	Affectionate 5	.97***	.79	.04	24.645
	Affectionate 6	1.02***	.79	.04	24.974
Family support	Emotional supports	1.00	.91	-	-
	Appraisal support	1.04***	.95	.02	46.086
	Informative support	1.00***	.92	.02	42.376
	Material support	.83***	.73	.03	26.171
Self-resilience	Vitality	1.00	.82	-	-
	Emoton control	.74***	.53	.05	15.088
	Curiosity	.88***	.70	.04	20.782
	Relationships	.84***	.76	.04	22.884
	Optimism	1.02***	.80	.04	24.464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Aggression 1	1.00	.87	-	-
	Aggression 2	1.03***	.84	.04	27.154
	Misdeed	.88***	.75	.04	23.928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Depression and anxiety	1.00	.92	-	-
	Shrinking	.85***	.78	.03	25.290
	Body symptoms	.80***	.64	.04	19.442

***p<.001

5) 가족 지지척도

가족지지는 Park(1985)이 제작하고 Kim(1997)이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하위영역별로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 가족, 교사 및 친구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부여하여 Likert 식 5점 척도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가족지지가 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정서적 지지의 Cronbach's α 는 .90, 평가적 지지의 Cronbach's α 는 .91, 정보적 지지의 Cronbach's α 는 .92, 물질적 지지의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18.0 프

Table 4. Analysis result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B	β	SE	C.R(t)	SMC(R ²)
Attention span temperament → Self-resilience	.40	.55***	.04	11.53	.53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Self-resilience	.06	.11*	.03	2.06	
Family support→ Self-resilience	.13	.20***	.04	3.65	
Attention span temperament→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08	-.20**	.02	-3.23	.16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04	-.11	.02	-1.76	
Family support→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01	-.02	.03	-.266	
Self-resilience→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08	-.15*	.02	-2.34	
Attention span temperament→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04	-.09	.03	-1.47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05	-.13*	.02	-2.13	
Family support→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08	-.17**	.03	-2.76	.25
Self-resilience→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14	-.21***	.04	-3.52	

*p<.05, **p<.01, ***p<.001

로그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의 인과관계와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증하였고,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은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후,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2 검증과 NFI, CFI, AGFI, RMSEA를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관측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구조를 살

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6개의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25개의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련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11~.87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관측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측정모형 분석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Table 2).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든 관측변수의 C.R 값이 .0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로로 추정되어 모든 관측변수는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에 대한 모든 관측변수의 요인 부하량 값이 인정 수치인 .50이상으로 나타나 관

측변수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 모든 관측변수를 투입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able 3 에서와 같이 $\chi^2=840.356$ (df=260, $P<.001$), RMSEA=.053, TLI=.911, CFI=.934로 χ^2 를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 모두가 기준에 부합했다. χ^2 지수의 경우 유의수준 .001에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지만 χ^2 지수는 사례수의 영향에 민감한 적합도 지수이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가 수용기준을 만족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 Fit indices for the measurement model

χ^2	df	p	RMSEA	TLI	CFI
840.356	260	.000	.053	.949	.955

3)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을 통해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

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주의집중성 기질,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 자아탄력성이 외현화 문제행동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Fig. 1).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213.091$ (df=261, $p<.001$), RMSEA=.067, TLI=.916, CFI=.927로 χ^2 를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 모두가 기준에 부합했다.

최종 구조모형에서 살펴본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 및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의 결과는, 6개의 잠재변수 간에 11개의 경로가 그려졌으며 이 가운데 8개의 경로가 유의하고, 3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자아탄력성에 대한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의 경로를 살펴보면, 주의집중성 기질($\beta=.55$, $p<.001$), 가족지지($\beta=.20$, $p<.00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beta=.11$,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들 변수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은 53%였다. 즉, 자아탄력성에는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이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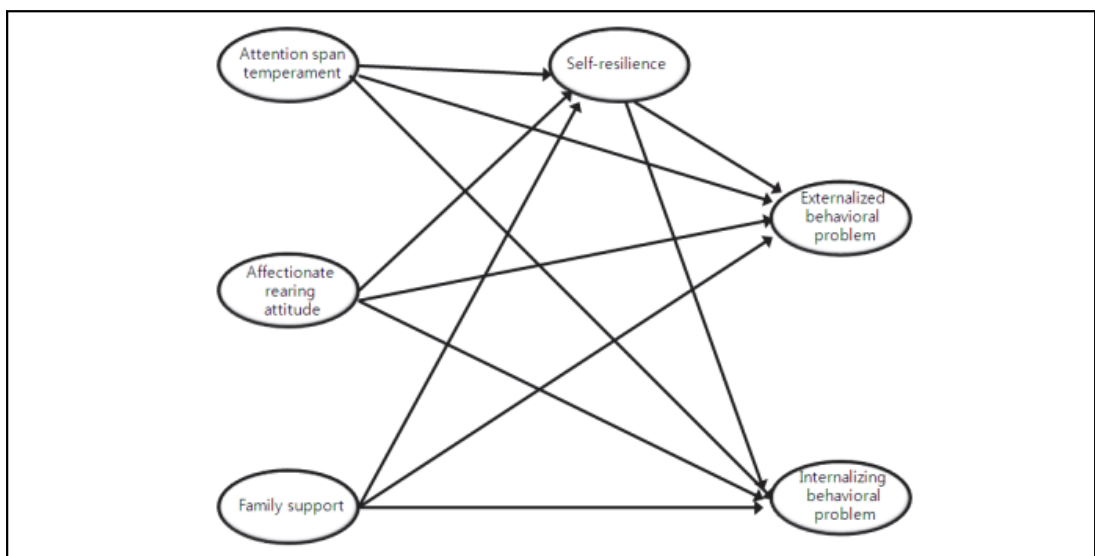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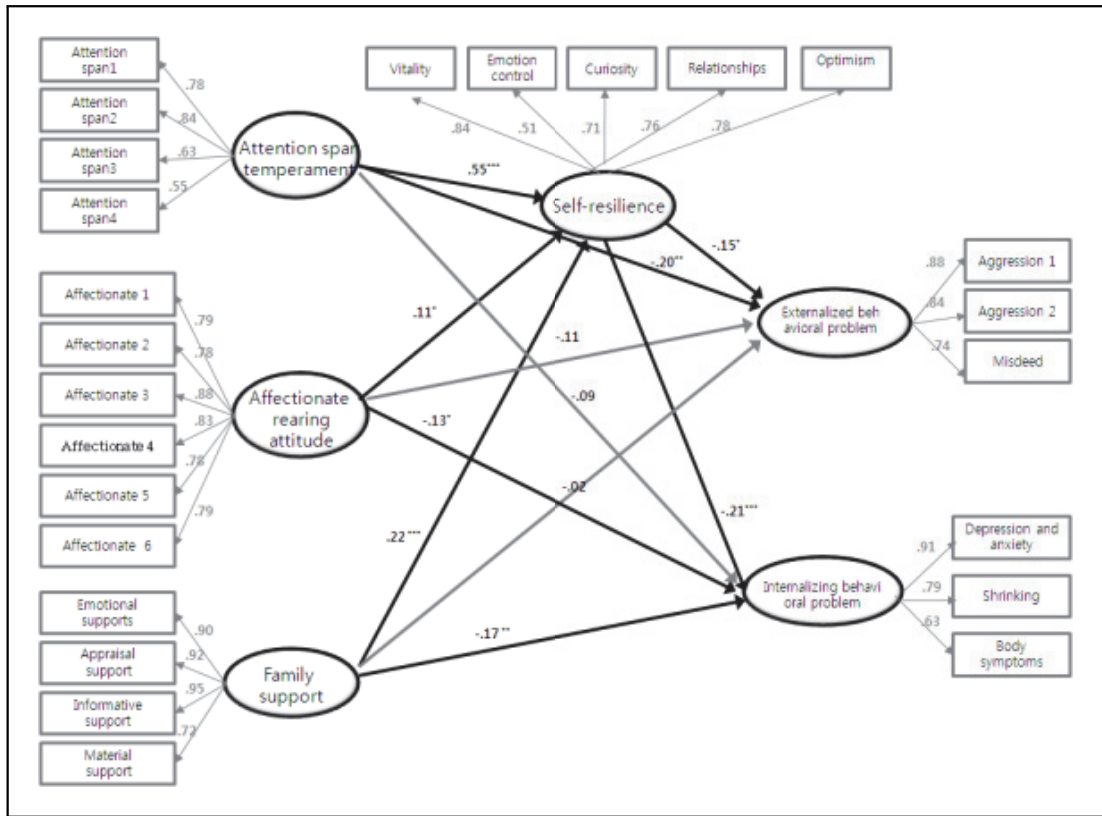


Fig. 2. Analysis result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Jeong(2011)의 연구에서 기질이 자아탄력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 자아탄력성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 ($\beta = .20, p < .01$)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beta = .15,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6%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이 강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주의집중성 기질의 상관성이 있다고 나타난 Son(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낮은 집중성을 가진 유아가 유치

원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는 Kim(199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고 나타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나 가족지지보다는 또래관계나 기타 외부적 환경요인의 영향이 중요할 수 있음을 추측케 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 자아탄력성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의 자아탄력성 ($\beta = .21, p < .001$), 가족지지 ($\beta = .17, p < .0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beta = .13,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5% 였다. 즉,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Table 5. Structural model estimates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SMC (R ²)
Attention span temperament → Self-resilience	.55***	-	.55*	.53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 Self-resilience	.11*	-	.11	
Family support → Self-resilience	.20**	-	.20**	
Attention span temperament → Self-resilience →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20**	-.08*	-.28*	.16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 Self-resilience →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11	-.02*	-.13	
Family support → Self-resilience →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02	-.03*	-.05	
Self-resilience →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15*	-	-.15**	
Attention span temperament → Self-resilience →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09	-.12**	-.20*	.25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 → Self-resilience →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13*	-.02*	-.16	
Family support → Self-resilience →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17**	-.04**	-.21**	
Self-resilience →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21***	-	-.21**	

*p<.05, **p<.01, ***p<.001

내재화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β)를 통하여 효과분해를 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정방식을 이용하여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Table 5).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잠재변수들의 효과분해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효과($\beta = -.20, p < .01$),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eta = -.08, p < .05$)와 총효과($\beta = -.28,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이 자아탄력성에 의하여 부분 매개가 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eta = -.02, p < .05$)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지지 역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eta = -.03, p < .05$)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잠재변수들의 효과분해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eta = -.12, p < .01$)와 총효과($\beta = -.20,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효과($\beta = .13, p < .01$),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eta = .02,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총효과($\beta = .16,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지지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효과($\beta = .17, p < .01$),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한 간

접효과($\beta = -.04, p < .01$)와 총효과($\beta = -.21, p < .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가족지지의 영향력이 자아탄력성에 의하여 부분매개가 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가족지지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과 개인 외적 변인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 그리고 심리적 변인인 자아탄력성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위해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구조방정식을 분석한 결과, 주의집중성 기질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였으며 자아탄력성이 그 뒤를 따랐다. 즉, 주의집중성 기질이 강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내재화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는 자아탄력성이었으며, 가족지지와 애정적 양육태도가 그 뒤를 따랐고 주의집중성 기질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지지와 애정적 양육태도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가 자아탄력성이라는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힌 Kim(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스트레스나 외부환경에 잘 적응하고 긍정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하며, 우울이나 불안 등에 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주의집중성 기질과 같은 개인의 기질적 요인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에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가족지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같은 개인

외적 변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며 또한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요인이 자아탄력성임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하겠다.

둘째, 자아탄력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는 주의집중성 기질이었고 다음으로 가족지지와 애정적 양육태도가 그 뒤를 따랐다. 즉, 자아탄력성에는 주의집중성 기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주의집중성 기질이 강할수록 가족지지와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는 자아탄력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주의집중성 기질이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이 강하다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지속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인지적 측면이 중요시되면서 학업을 성취하는데 있어 주의집중성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Martin & Holbrook 1985) 주의집중성이 약하여 산만할 경우 학습능력의 저하나 자신감 상실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의집중성 기질에 따라 비슷한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문제를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Kim 2012). 이처럼 주의집중성 기질이 약할 경우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자극에 쉽게 민감해져 산만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쳐 적응이 낮아지고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되어진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과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는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주의집중성 기질은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는 간접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아탄력성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주의집중성 기질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탄력성을 경유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아탄력성을 경유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 주의집중성 기질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으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즉,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주의집중성 기질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한 가지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외부 자극에 빠져들거나 민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기시기에 주위의 반응에 휩쓸리거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조절의 힘이 약하여 공격성이나 비행행동을 쉽게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 특히 아동기 후기 시기에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또래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며 또래들의 반응이나 행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기는 하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가 학교에서의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로 확장이 되면서 모의 양육태도나 가족지지적인 측면의 직접적인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며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보다 자아탄력성 등의 심리적 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공격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 자아통제로 나타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Kim & Lee 2011) 자아를 통제하는 능력을 포함한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매우 의미있는 변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외현화 문제행동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지각되는 사고의 측면보다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Sin 2009)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감정이나 느낌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양육태도나 지지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대처해나가는 힘이 생김으로써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주의집중성 기질은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태도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지지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주의집중성 기질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영향을 미치기보다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경유하여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의집중성 기질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화 문제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상의 문제가 아닌 내적 억제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주의집중성 기질이 약하여 내재화문제행동을 일으키기 보다는 환경의 대처방식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주의집중성 기질이 약할 경우 부모나 선생님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쉽고 그로인해 자아탄력성이 약해져 스트레스에 취약해짐으로써 우울이나 불안등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탄력성을 경유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기질적 요인 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즉,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중요시되는 개인 외적 변인 중 가족지지는 내재화 문제행동인 아동의 우울을 설명하는 핵심요인으로 밝혀져 왔다(Yeo & Jeong 2009). 또한, 자아탄력성이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연구(Kim & No 2003)와 부모의 지지 및 온정을 높게 지각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성향이 낮게 나타난 연구(Yang & Eim 1998)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행동은 타인 특히 가족의 온정, 지지, 수용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있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문제행동으로서(Achenbach & Edelbrock 1983) 아동이 정서적 안정감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문제행동으

로 생각된다. 아동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적인 양육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으며 가족을 통해 다양한 지지를 받음으로써 바깥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환경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자아탄력성이 직접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Yoo 2008; Han 2010)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기질적 요인과 개인 외적 변인만을 살펴보기보다 심리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는 물론이고 직접적으로도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이에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위협요인이나 문제행동에 대한 적응기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자아탄력성에는 가족지지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같은 개인 외적 변인의 영향도 중요하나 주의집중성 기질이 상대적으로 더욱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의집중성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향성으로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환경에 의해 조절될 수 있으며(Chess & Thomas 1984) 중재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므로 주의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주의집중성 기질이 약할 경우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기질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를 중재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유아기부터 공교육 현장에서 제공해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셋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의 지지는 직접적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안정적인 애착을 만들어 자아탄력성

을 형성하고 발달시킴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외현화 문제행동은 행동을 조절하고 대처하는 측면이 중요하므로 역할극등과 같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대처행동과 억제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전한 분노표출의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집단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조기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의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등 바깥환경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아동기시기를 지나 청소년기시기에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에 외현화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개인 외적 변인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가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가 나타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아동의 위축, 우울, 신체 증상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적 개입시 우선적으로 부모상담 및 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부모 상담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차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나 이 시기의 아동들의 경우 발달부분에서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며 이에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성차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질적 요인으로 주의집중성 기질만을 선택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요인을 더 많이 탐색하기 위해 다른 기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척도 중 비행 항목에서 왜도와 척도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거된 문항이 발생하였다. 이는 비행이 아동·청소년이 행하는 잘못된 행동을 의미하기는 하나 비행행동의 범위와 규정이 시대 및 사회와 문화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비행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주의집중성 기질과 개인 외적 변인, 심리적 변인만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살펴본다면 문제행동에 좀 더 심층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족지지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변수인 자아탄력성이 각각의 변수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Abikoff H, Jensen P, Arnold LL(2002) Observed classroom behavior of children with ADHD: Relationship to gender and comorbidity. *J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349-359
- Achenbach TM, Edelbrock CS(1983) *Manual for the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M, McConaughy SH, Howell CT(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Ahn J(2009) Children's well-being on their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 Bates JE, Bayles K(1988)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Clinical implication of attachment*, New York: Wiley 253-299
- Bryant BK(1985)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New York: Wiley 332-351
- Buss HH, Goldsmith HH, Plomin R, Rothbart MK, Thomas A, Chess S, Hinde RA, McCall RB (1987)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 505-529
- Chess S, Thomas A(1984) *Origins and evolution of behavior disorders*. new york: brun-er/mazel
- Cunningham WA, Little TD, Shahar G, Widaman KF(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Dawson MM, Hallahan DP, Reeve RE, Ball DW (1980) The effect of verbal reinforcement and verbal rehearsal on selective attention in learning disabled children. *J Abnorm Child Psychology*, 8, 133-144
- Eisenberg N, Fabes RA, Losoya S(1997) Emotional responding: regulation, soci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129-163 New York: Basic Books.
- Goldsmith HH, Buss AH, Plomin R, Rothbart MK, Thomas A, Chess S, Hinde RA, McCall RB(1987) Roundtable :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 505-529
- Gray MR, Steinberg L(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 Korean Family*, 61, 574-587
- Hallahan DP, Kauffman JM(1978) *Exceptional children :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Han YM(2010) The mediation effect of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s ego-resilience and depression. Doctoral's thesis, Hongik University
- Hartup WW(1989) Social relation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 Ha EH, Hong KE, Lee SJ, Oh KJ(1997) Parent- adolescent agreement in the assessment of behavior of adolescents: comparison of factor structures of k-cbcl and ysr
- Hong ES(2006)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sse*. 41(2), 45-67
- Holbrook J, Martin RP(1985) Relationship of temperament characteristics to the academic achievement of first-grade children, *J Psychoeducational Asses* 3, 131-140
- Huh MY(1999)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Doctoral'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Jeong JY(2011)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Kang CY(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style, marital conflict, caring behavior, and child behavioral problems. Doctoral'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 Kaplan HB, Martin RP, Robbins SS(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 *J Health and Social Behavior* 1, 93-115
- Kim BR, Lee GM(2011) The influence of negative life events, ego-resiliency,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Korean J Educ Res.* 48(3), 1-24
- Kim EG(2000) The relationship among the children's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concept and problem behaviors. Master's Thesis, Yonsei counseling education university.
- Kim GH(1997)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school-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 Kim HS(1995) The relations between the children's temperament perceived by mother and teacher and their adjustment and behaviors in the kindergarte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JS, No SD(2003) Ego-resilience, school and family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uicidal impulse and psychosocial variables. *J Student Guidance Research* 21, 153-172
- Kim JY(2005) Path model of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internal attribution on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 Kim MJ(2005) The effect of 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ego-resiliency on the children's internalizing-externalizing.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Kim MS(1995)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of children, Doctoral'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 Kim SG(2012) The effects of art therapy on case study self-esteem with adhd - focusing on the clay medi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Kim YH, Nam SH(2000) Mother's psychological factors and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sex. *J Human Ecology*, 3, 17-28
- Kim YS(2005) The relationship child's temperament and father/mother attachment and problems behavior.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 Klohn EM(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 Personality Soc Psychology*, 70(5). 1067-1079
- Kwak KG(2009) A longitudinal study on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s development : growth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s of Korea
- Kwon EK(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child's self-resiliency.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 Kwon GS(2011) Qualitative analysis of child temperament, mother personality, mother-child interaction about the child's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 Kwon JH(2007) A study on explanatory variables of ego-resilience of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Lee MS(1994)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peer-support on the self-evaluation early adolescents. Doctoral'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Lee S, Park SY(1988) Korea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variables. *K associ child studie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23(1), 143-156
- Lee SH(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background and the development of the attentiveness of children,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 Lee WY(1984)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s and child-rearing attitude to child development. Doctoral'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JY(2008) A study on the children's recognition process and signification of disruptive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 Ock BN(2010) The influence of the class teacher's communication skills and attitudes perceived by the student on school maladjustment - focusing on inter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y, Doctoral's Thesis Inje University
- Park EH(1996)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y, iq and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Park HR(2003) Study of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psychological disord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 Park HS(2010) Perceived maternal rearing attitudes on the adolesc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 Park JO(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ale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Park YM(1996)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aring attitudes of the mother whose children late for school and child'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 Master's Thesis, Keimyung education university
- Pettit GS, Dodge KA, Brown MM(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812-829
- Pettit GS, Bates JE, Dodge KA(1997) Supportive parenting,

-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Primvera JH(1982) Studies on broodstock of *supgo penaeus monodon fabricius* and other penaeids at the seafood aquaculture department. *masine biological association of india*,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coastal aqua-india,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coastal aqua-culture, cochin, india, 12-18, 1, 28-36
- Rohner RP(1987)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control, and punishment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school conduc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youth in a biracial southern community. Unpublished data
- Sim HO(1999) Relationship of social skills &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to adjustment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6), 11-22
- Sim YC(1992) Effects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self-concept on juvenile delinquency. Doctoral'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Sin EJ(2009) The effects of maladaptive thoughts and self-control on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Son SY(2004) Differences in preschool child temperament and marital behavior between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Sunghin Women's University
- Symonds P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 (N.Y: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s collage, columbia university
- L Thomas ST, Buckland EA, Rexstad JL, Laake S, Strindberg SL, Hedley JRB, Bishop TA, Marques (2010) Distance software: design and analysis of distance sampling surveys for estimating population size. *J of applied Ecology* 47, 5-14
- Webbster-Stratton C, Herbert M(1994) *Troubled families-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hichester: john wiley & sons
- Windel M, Lerner RM(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s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 *J Adole Research.* 1(2), 213-230
- Yang DG, Eim YS(1998)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er on the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J Korean Psychology: Social Issues* 4(1), 55-74
- Yeo JL, Jeong MJ(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worth in path analysis. *J Korean Home Eco Assoc* 47(10), 29-37
- Yoo EA(2008)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on emotional adaptation through ego-resilienc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